"골잡이는 오직 골로 말한다"

아드보 '작은 황새' ■ 조재진 VS 아데바요르 골잡이 대결 토고 축구의 희망

'누가 웃나 두고 보자'

아드보카트호의 '작은 황새' 조재진(25·시미즈S펄스)과 토고 축구의 희망 에마뉘엘 아데바요르(22·아스날)가 2006 독일 월드컵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자존심을 걸고 골잡이 대결을 벌인다.

무대는 13일 밤 10시(이하 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 코메르츠방크 아레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토고와 맞대결에 조재진을 최전방 원톱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데바요르는 모하메드 압델 카데르 쿠바자(갱강)와 함께 투톱으로 공격 일선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득점기회가 많은 골잡이로서 둘 중 하나가 G조 첫 골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높다.

조재진(185㎝ 81㎏)과 아데바요르(190㎝ 70㎏)는 체격 조건이 비슷하다. 장신을 이용한 고공 플레이의 위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딴판이다.

조재진이 타깃형 스트라이커에 가깝다면 아데바요르는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특유의 유연성과 개인기로 직접 공격의 활로를 뚫는 스타일이다.

조재진은 A매치 21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아데바요르는 29경기에 나서 12골을 터트렸다.

독일 월드컵 지역예선만 보면 조재진은 두 경기에만 교체 출전해 무득점에 그친 반면, 아데바요르는 12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팀내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 최다골인 11골을 몰아넣는 등 무시무시한 골 결정력을 선보였다.

17세이던 2001년 FC메스 1군에 합류,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한 아데바요르는 데뷔 첫 해인 2001~2002 시즌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다. 2002~2003 시즌엔 34경기에서 13골을 몰아넣어 2부 리그 득점랭킹 2위에 오르며 한 시즌 만에 팀을 다시 1부로 올려 놓았다.

그는 올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로 이적한 뒤로도 13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연착륙에 성공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대표 출신인 조재진도 올 시즌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12경기에 출전해 8골 2도움을 올리는 등 골 감각만큼은 결코 아데바요르에 뒤지지 않는다.

선배 안정환(30·뒤스부르크)을 제치고 독일 월드컵 첫 경기 선발 출전기회를 잡은 조재진은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컨디션이 좋다. 두려움이 없는 만큼 많이 부딪혀보고 싶고 골 넣을 자신도 있다"며 토고 격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너스 파동의 '주동자' 중 하나로 알려진 아데바요르는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는 승리에 배고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전의를 다시 되살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필살기 '세트플레이의 비밀' ■ 한국-토고전 관전포인트 첫 골 주인공 누구? 몇 골이나…

토고를 상대로 역대 월드컵 사상 원정 경기 첫 승을 기대하면서 토고전에서 눈여겨 볼 관전포인트를 정리한다.

▲ 아드보카트호 '세트플레이의 비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팀 전술의 90~100%가 완성됐다" 토고전을 이틀 앞두고 아드보카트호의 송종국(수원)이 자신있게 내던진 출사표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다양한 선수 기용과 전술을 통해 토고전을 위한 맞춤훈련에 몰두했다.

그렇다면 토고전을 '승리카드'로 이끌어 낼 세트플레이의 완성판은 어떤 것일까.

아드보카트 감독은 그동안 프리킥 상황에서 이천수(울산)와 김진규(이와타)를 프리킥 지점의 거리에 따라 나눠차게 했다.

코너킥은 이천수를 비롯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두현(성남) 등 주로 플레이메이커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4차례 평가전을 통해 프리킥 상황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터진 골은 하나도 없었다. 이 때문에 토고전에서는 기존의 프리키커들 뿐 아니라 킥력이 정확한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안정환, 역대 월드컵 최다골 도전

지금까지 역대 월드컵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2골 이상 뽑아낸 선수는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안정환(이상 2골) 등 4명이다.

홍명보가 대표팀 코치로 변신하고 황선홍과 유상철이 은퇴한 상황에서 태극전사 최다골의 영광을 차지할 기회는 안정환에게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토고전에서 조재진(시미즈)의 원톱 선발출전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정환은 언제 투입되던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특급조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단 5분을 뛰더라도 팀에 도움이 되겠다"는 안정환의 일성이 의미심장하다.

▲ 다득점을 노려라

본선 첫 상대로 토고를 만난 것은 과연 약(藥)일까 독(毒)일까. 한국은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유럽(헝가리,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4경기, 남미(아르헨티나) 1경기, 북중미(멕시코) 1경기 등 총 6경기(1승5패·7골19실)를 치렀다.

이중 첫 경기에서 승리를 일군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폴란드전(2-0승)이 유일하다. 더불어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것은 지난 1998년 프랑스월드컵 멕시코전(1-3패)과 2002년 한일월드컵 폴란드전(2-0승)을 합쳐 단 두 차례다. 역대 7번째 월드컵 참가에서 한국은 이번 독일월드컵을 통해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뒤지는 팀을 만난다. 이에 따라 역대 월드컵 첫 원정경기 승리 뿐 아니라 월드컵 2회 연속 본선 첫 경기 승리의 위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상쾌한 아침 편안한 잠
폭신폭신한 "수맥돌침대"
몸이 찌뿌둥 할 때! 미국 F.D.A승인.